

고대법학

2015 Late Fall, Vol. 11

발행일 2015년 11월 13일, 제11호 발행인 김규완 편집인 이항 편집장 김재희(6기) 편집부 금현경(5기), 나지선(6기), 박민선(6기), 이상호(6기), 김소정(7기-2014591016), 김소정(7기-2014591017), 김현중(7기), 조승원(7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7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Long lesson in
Humility

Life is Long Lesson in Humility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 02 PEOPLE OF KU LAW 김규완 법학전문대학원장님 취임 인터뷰
- 04 KU FOCUS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연구센터
- 06 KU SPOTLIGHT 한-독 국제학술회의
- 07 INTERVIEW 한-독 국제학술회의 김선택 교수님 인터뷰
- 08 KU REPORT 제2회 ABL 심포지엄
- 09 KU REPORT 멘토-멘티제 만남의 밤
- 10 LAW FIRM INTERN 인턴수기
- 12 KU REPORT JOP FAIR

정의롭게, 자부심으로 나아가라

김규완 고려대학교 신입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난 7월 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 김규완 교수가 새롭게 취임했다. 로스쿨 도입 8년,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논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시점, 로스쿨 시행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의 통찰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다. 스스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명감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자부심을 이을 해법과 미래를 들어보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직에 취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요한 시기가 함은 제 임기 초에 입학하는 8기가 졸업하는 때인 로스쿨 시행 10년 후가 되면 고려대 로스쿨의 reputation이 확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확립된 평판은 그것이 괜찮은 것이든 그렇지 못하든 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은 뿌리를 굳게 내려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한편, 잘못됐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치거나 바꿈으로써 과거 '고대 법대'가 누렸던 평판 그 이상이 구축될 수 있도록 궁리하고 도모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무거운 어깨를 세분의 부원장님들을 비롯한 보직교수님들께서 부축해주고 계신 탓에 견딜 만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무는 정승환 교수께서, 학생은 하명호 교수께서, 기획대외는 이황 교수께서 그리고 번시지도는 김상중 교수께서 각각 수고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취임 이후 어떤 일들을 진행해 오셨나요?

그나마 학사 일정이 종료된 시점인 방학 중에 보임되어 다행스럽습니다. 방학 때처럼만 하면 원장도 할 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개강 후 많이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기에 이미 기획되어 시간과 장소까지 확정된 몇 가지 국내외 행사를 치렀고, 그 일환으로 추석 직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 법대·법전원을 공식 방문하여 학술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및 기대 부원장과 함께, 12대 로펌을 방문하여 대표변호사와 recruiting 담당 변호사들을 만나 취임인사도 드리고, 법조환경, 특히 변호사 채용실황과 법전원 교육방향 등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진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드웨어 1차적으로는 공간의 효율적 제배치 문제입니

다. 구법학관, 신법학관, CJ법학관, 해송도서관으로 둘러싸인 안암 고대의 동북쪽은 과장과 자부심을 섞어 말씀드리자면 한국 법학의 교육 및 연구의 complex라 할 수 있습니다. 낭비되는 공간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여지는 없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전원 공간문제의 핵심 현안은 역시 법전원전용 기숙사입니다. 법전원에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강구해 그 초석을 다지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1차적으로는 커리큘럼의 개선입니다. 현재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가 7년 차로 성장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경제, 사회 및 법조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이러한 자기발전에 부응하는, 또는 요구되는 발전을 유도하거나 촉구하는 차원에서 커리큘럼의 재구성이나 재편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TFG가 법전원 학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석사과정과 병행하는 특성화 프로젝트나 전문인증 프로그램 및 전문박사를 포함한 일반·법대학원시스템에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도 살펴겠습니다. 이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은 학생회를 통해 수렴할까 하니 좋은 의견들을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수진의 '기능적' 확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등의 보완·개선이나 교수진 확충·보장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남의 생각 슬그머니 갖다 쓰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보안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다면, 누가 만든 지표와 매년 달라지는 배점에 따른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그 결과가 두려워 지표를 관리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데 급급한 로스쿨이 아니라, 로스쿨은 이래야 한다는, 즉 지표를 결정하고 선도하는 기준으로서의 로스쿨을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3개월 남짓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렵다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조직의 관리를 위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딪힌 벽은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의사의 소통과 결정의 합리적 구조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 의견의 신속한 소통 내지 교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결여되어 있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때 절차준범은커녕 아예 절차가 예비되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런 것이었다면 굵든 제 문재이지, 걱정할 만한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장점 또는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대 법전원만의 장점은 말 그대로 '고대의 구성원이라

는 점일 것입니다. 구성원의 이익이나 손실이 조직의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조직이 많지 않은데, 고대라는 조직이 그 중 하나입니다. 구성원의 이익이 크면 클수록 고대의 이익도 커지고, 그 역도 마찬가지로 참인 것 같다는 뜻입니다. 지난 8월말에 있었던 멘토-멘티 테이에 혹시 참여하셨는지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고대만이 기획하고, 실제로 개최하여 성공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로스쿨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기획할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고대 교수 멘토들에게 '외래지도교수'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계획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변화 또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양성이 창의력의 전제라는 명제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태를 같은 지점에 서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다른 생각, 더 좋은 생각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하나의 상위 내지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것 또한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대 법전원생들이 재학 때는 물론, 졸업 후에도 공익기여의 품성을 갖추고, 적어도 명백한 불의는 거부하는 정의의 관념을 공유하는 유대감으로 결속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학교는 고대 법전원의 평판을 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모든 비교대법조인이 부러워할 고대 법전원만의 명예와 그에 대한 자부, pride를 스스로 만들어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로스쿨의 역할과 기능이 1차적으로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양성'이라고 거칠게 압축한다면, 이른바 대형 로펌은 법학의 기초지식이 안정되어 있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논리적 글쓰기가 되는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현존성은 결국 법률기초지식의 논리적 글쓰기로, 잠재성은 독창적 사유방법의 훈련을 통해 함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1학년 때, 후자는 2학년 때가 그 훈련을 위한 적기라 생각합니다. 3학년 때는 이를 종합하는 훈련을 통해 졸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조연이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한편 실력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대형 로펌에 취직해야만 한다고, 또는 취직했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형 로펌이 원하는 인재상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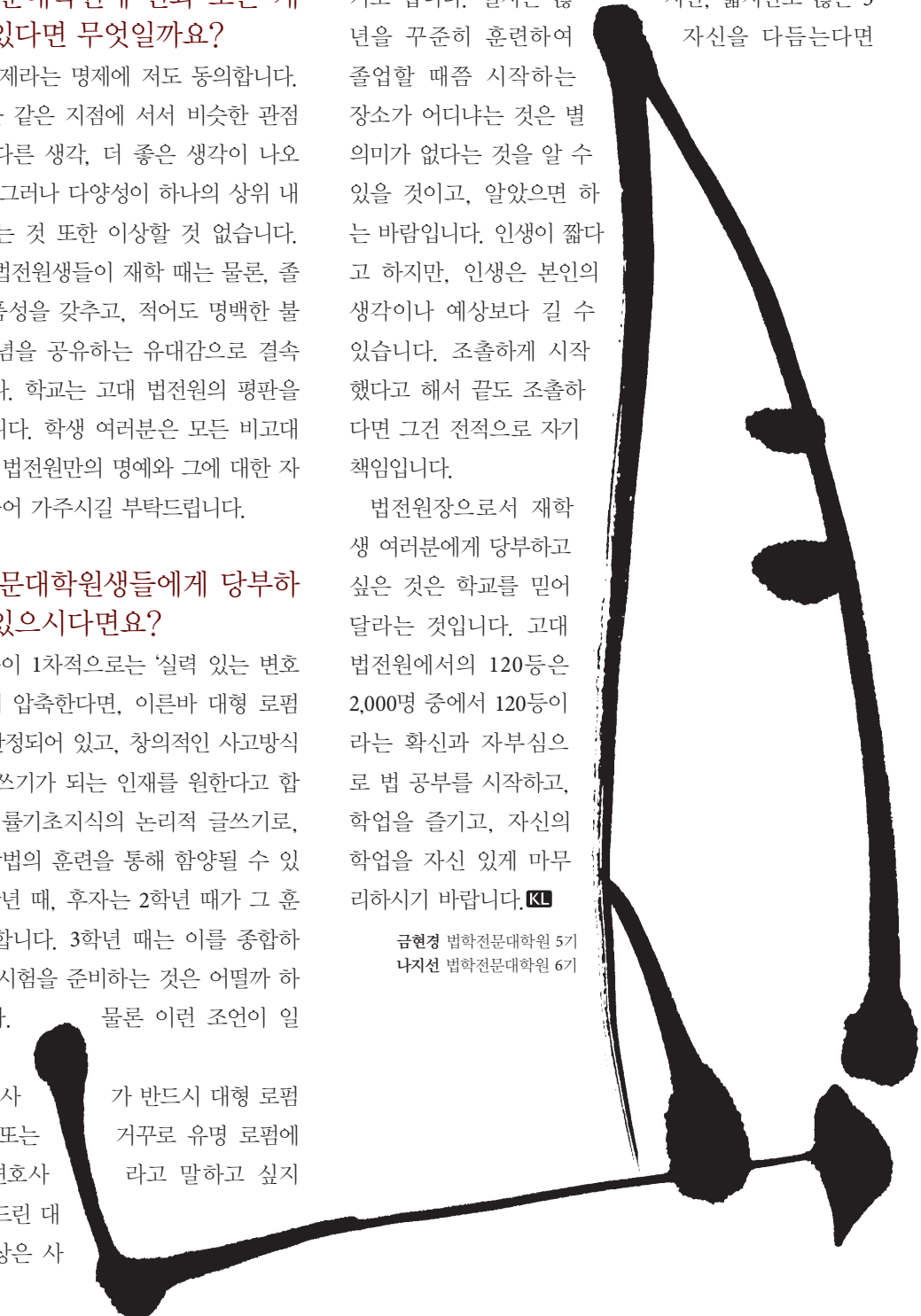


실 이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길지는 않지만, 짧지만도 않은 3년을 꾸준히 훈련하여 졸업할 때쯤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인생은 본인의 생각이나 예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조출하게 시작했다고 해서 끝도 조출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법전원장으로서 재학생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고대 법전원에서의 120등은 2,000명 중에서 120등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으로 법 공부를 시작하고, 학업을 즐기고, 자신의 학업을 자신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KU**

법전원장으로서 재학생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고대 법전원에서의 120등은 2,000명 중에서 120등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으로 법 공부를 시작하고, 학업을 즐기고, 자신의 학업을 자신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KU**

김현경 법학전문대학원 5기
나지선 법학전문대학원 6기



사이버세상의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연구센터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연구센터는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활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 법학연구원 내에 설치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에 적용되는 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관련 사회적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학연구원의 최근 콜로키엄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13회 Cyber Law & Policy Colloquium 제 4차 정보안보에 관한 유엔정부전문가그룹 보고서 분석과 국제사이버법 발전 전망



지난 9월 18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콜로키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제4차 국제안보차원에서 정보안보에 관한 유엔정부전문가그룹 회의(UNGGE)'에서 채택된 보고서를 주제로 한 것이다. 보고서 채택의 경과 및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국제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후원 하에 사이버법연구센터 소장 박노형 교수가 주제 발표를,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유준구 교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20개 UN회원국들은 국가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용에 적용될 국제법과

국가 책임 있는 ICT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규범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4차 UNGGE 최종보고서는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의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UN헌장이 '그 전체로서(in its entirety)' 적용되고 UN헌장에 규정된 자위권이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로서 인정되며 사이버전쟁에 적용될 국제 인도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책임 개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종보고서상 합의는 제3차 UNGGE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으려는 미국, 독일 등 서방국가들과 구체적 합의를 회피하려는 비서방국가들의 지열한 이

제14회 Cyber Law & Policy Colloquium Japan's Response to Cyber Threat



10월 2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콜로키엄은 일본 게이오대학 Motohiro Tsuchiya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사이버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사이버맹주를 꿈꾸고 있는 만큼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00년 중국 해커들에 의해 16개 정부기관 사이트가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서 담당하던 사이버수사를 대폭 강화하여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를 자위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2014년 3월에는 자위대 예하에 '사이버공간방위대'를 창설하였으며 2014년 11월에는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Cyber Security Basic Act)'을 제정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매년 새로운 사이버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5년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건수는 11만건이 넘는다. 특히 통일정책과 북한이주민의 신상 등 민감한 정보를 보관 중인 통일부와 외교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수

제15회 Cyber Law & Policy Colloquium 미국-EU 프라이프하버에 대한 EU사법법원 결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시사점



10월 16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제15회 콜로키엄은 김연장 법률사무소의 이창범 박사가 사회를 진행하였고 사이버법연구센터 소장 박노형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현영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다.

유럽연합(EU)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cerning them)'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제3국에서 처리될 목적으로 이전될 경우, 해당 제3국은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2000년 유럽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afe Harbor 체계를 개발하였고 유럽위원회는 Safe Harbor 체계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2015년 10월 6일 EU사법법원은 일명 'Schrems사건'에서 Safe Harbor 체계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유럽위원회 결정이 EU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미국 기업은 '국가안보, 공공이익 또는 법집행을 이유로' 미국 정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미국 정부는 EU의 개인에게 '미국에서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럽위원회가 '회원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연구센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사이버법·정책 콜로키엄(Cyber Law & Policy Colloquium)'을 개최하고 있다. '콜로키엄'이란 DDos 공격,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법·정책적 측면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학문적 교류의 장이다.

해관계 대립을 거쳐서 간신히 타결된 것이다. 따라서 2016년 제5차 UNGGE에서도 이번 보고서의 해석을 놓고 국가간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20개 UN회원국들이 참여, 그 구성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이라는 보편적인 국제기구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규범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며,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IT강국의 명성을 지키고, 한국의 현실에 중요한 국제규범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규범 발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견해를 같이하였다.

백건에 이르는데, 모의해킹 결과를 보면 취약점이 60개 이상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해킹 시도가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를 경유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찾기 어렵다.

제14회 콜로키엄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이버정책을 설계해나가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교훈으로 삼을 점과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

국의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월권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콜로키엄은 이러한 EU사법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그 함의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

EU사법법원의 판결로 인해 정보교류에 큰 타격을 입은 미국과 EU는 대응전략을 내놓을 것이고, 이는 EU의 다른 회원국 간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콜로키엄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KU**

박민선 법학전문대학원 6기

KU NEWS



제62회 해외저명인사 특강

지난 8월 31일 신법학관에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자 버크맨 인터넷과 사회 연구소 소장인 Urs Gasser 교수가 자리하여 美 하버드 대학교 버크맨 센터를 소개하고 '하버드대 여름 유급인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63회 해외저명인사 특강

지난 10월 2일에는 신법학관에서 김용재 교수님의 기업금융법 강의에 美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Chalels R. Irish 교수가 방문하여 '국제 금융과 Tax Haven'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64회 해외저명인사 특강

지난 10월 8일에는 신법학관에서 한국 법철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 주최 하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철학, 법사회학, 형법 교수이자 세계 법 및 사회철학회(IVR)의 전임 회장인 Ulfird Neumann 교수가 자리하여 '법실증주의 이후 시대의 법률과 판결(Gesetz und Richterspruch im nachpositivistischen Zeitalter)'을 주제로 특강하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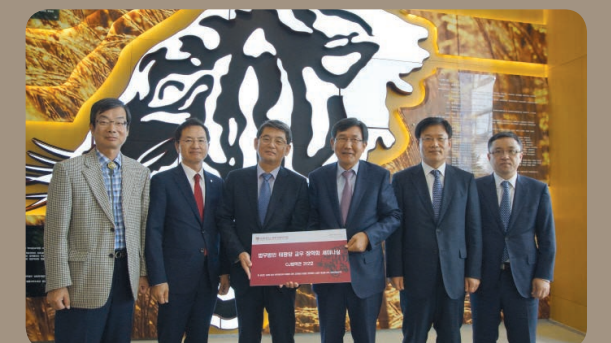
법과대학 교수회, 아동양육시설 및 농촌 봉사활동 진행



지난 9월 13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아동양육시설인 해심원을 함께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법과대학 교수회는 사회복지법인 반곡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 해심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문화활동 등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함께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놀이공원에서 바다 생물체험활동을 하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법과대학 교수회는 지난 10월에는 과수원을 방문, 농촌 일거리 돕기를 진행한 바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교수장학회,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기금 기탁



고려대학교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교수들로 이루어진 태평양 교수장학회에서 지난 9월 7일 장학금 2,000여만 원을 기탁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CJ법학관 1층 범민 황의빈 라운지에 태평양 교수 장학회를 초청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태평양 교수 장학회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2명의 장학생을 선정,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학년별로 1명씩, 총 3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태평양 교수 장학회는 장학생들에게 소속 변호사 멘토를 지정하여 학생들이 점차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한 법조인 교수장학회의 노환근 교문은 앞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실공히 사회의 등불이 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산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규안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최초의 법학교육기관이자 실천하는 지성의 산실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정성을 기리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KU**

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7기

KU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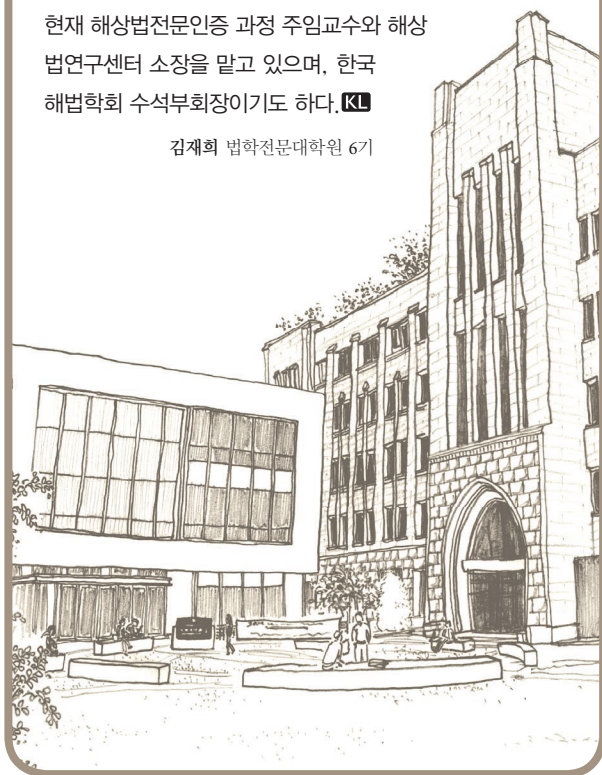
김인현 교수 논문 인용지수 2개 부문 1위 래거

2015년 11월 4일, 학술진흥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인용지수(KCI) 중 피인용회수와 H지수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총 2,500명의 법학자 중 1등으로 집계되었다. 이 지수는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의 인용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김인현 교수는 총피인용 회수에서 318회로 2위보다 35회가 많았고 H지수는 11을 기록하였다. H지수 11은 11번 이상 인용된 논문이 11편이 있다는 의미로 남보다 빨리 우수한 논문을 많이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김교수는 10년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총 58편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년간 6편의 다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1982년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산코라인에서 선장을 거친 마도르스 출신 법학자이다. 해상법과 해상보험의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논문을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명한 외국학술지인 SSCI에 9편, SCOPUS지에 3편의 영어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라는 영어서적도 출간하였다. 그의 해상법(법문사)과 해상교통법(삼우사)은 학계는 물론 실무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다.

김교수는 본 법전원의 학생부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해상법전문인증 과정 주임교수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이기도 하다. **KU**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한국과 독일의 자유·통일·헌법 비교 논의

제2차 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자유·통일·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독일 통일 25년, 한국 분단 70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고려대학교와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및 헌법이론실무학회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으로, ‘21세기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법치주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학술회의이다. (2014년에 진행된 첫 번째 학술회의에 대한 기사는 고대법학 8호(2014년 겨울호) 참조)

주제 발제 후 이에 대한 지정토론이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9월 16일에는 <자유와 통일-국가적 통일과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ww개회식에 이어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에 관한 김선택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고, 다음으로 ‘부분헌법으로서의 기본법으로부터 전체독일의 헌법으로’라는 주제로 갈라 연구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9월 17일에는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통합과 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독일통일 후 동독인들의 자유의식과 법치주의의식의 발전’이라는 쿤츠 범무부차관보의 주제 발제에 이어 방승주 교수가 ‘통일과 체제불법생산’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다음으로 ‘통일독일의 수요에 따른 1990년 이후의 독일 사회보장법의 재구성’을 주제로 알빈 네스 박사가, ‘통일비용의 재원과 조달방법’에 대해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남강)가 발제하였다. 끝으로 이재희 박사가 ‘통일시 남북주민의 정치적 평등권 보장’에 대해 발제하였다.

행사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정치적 자유와 정치제도>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의 직업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라는 주제로 정태호 교수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독일의 기본권 상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제로 갈라 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다음으로 윤정인 연구교수가 ‘한국에서의 정당설립의 자유’, 다니엘 문덜 박사가 ‘독일에서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해 발제하였다. 끝

으로 김효연 박사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지정토론 및 질문 시간을 거쳐 전체 학술회의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통일과 법치 주제로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이끌어

“수업 시간과 겹치고, 고연전 행사 일정과도 겹쳐서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일부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 학생들 역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시의성 있고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주제라 그런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대 받았던 내용들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이야기를 통해 색다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사례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KU**

김현중 법학전문대학원 7기

KU INTERVIEW

통일을 넘어 인류라는 의제 향해야

한-독 국제학술회의 참가한 김선택 교수



학술회의를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성공적인 회의를 마쳐 기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 학자들과 독일 학자·공무원 간의 쌍방향적인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양국 학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독일 세대의 흥미로운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독재의 경험을 공유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를 통일재건사무를 담당할 분들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학술회의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입헌주의와 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올해에도 다른 ‘통일’에 관한 주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새삼 느껴지지만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통일 의지’입니다. 여러 경제적, 국제적 사정 역시 중요함은 틀림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국민의 희생심과 북한 국민의 인내심을 포함한 통일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의지는 단순히 통일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과정들에서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오히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다면 남·북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등에서 통일 및 동포에 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의지는 점

점 감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할 때 내년도 통일 의지의 고취 방법을 포함한 통일 관련 주제는 반드시 다루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주제입니다. 수많은 선진국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민주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시도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좌절되어 왔습니다.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독재를 경험하고 민주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기억하고 또 그것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서요. 그런데 기억은 사라지기 마련이므로 기억과 평가를 위해서도 기구·장치를 통한 민주 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헌주의’에 대한 주제입니다. 헌법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며 따라서 헌법적 판단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입헌주의 헌법 이론에 대해 깊은 논의를 전개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통일이나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입헌주의의 기반 아래 논의되는 것이므로 상호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이와 같지만 내년 회의의 주제를 위한 주제선정 과정에서 독일 측과의 의견 교류도 필요하며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보다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세 차례로 계획된 학술회의 이후의 일정을 말씀해주신다면요.

3년의 학술회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쳐진다면 다른 주제로 학술회의는 또 개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난민문제, 21C의 민주주의의 방안 등과 같이 우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필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학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보다 대등한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 수준은 더 이상 변방 수준이 아니며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학문도 이제 현재를 ‘형성’하는 문제들에 기여해야 하며 학술회의가 이어진다면 그러한 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수업일정 등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은 잘 알지만 이런 학술회의는 놓치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회입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이해를 위해 아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통일, 시민교육, 입헌주의 등 우리 국민이라면 법학 공부를 떠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최선의, 최고 수준의 학술적 대회가 실제 학생들의 헌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러한 회의에의 참여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KU**

김현중 법학전문대학원 7기

비즈니스·금융 분야의 규제 및 관련법 공론의 장

제2회 ABL 심포지엄 현황리 개최

'Asian Business Lawyer(편집장 정영환 교수, 이하 ABL)'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2008년 5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영문지널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학지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BL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거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학문적인 장을 마련하고자 김정호 교수(고려대학교)의 노력에 의해 창설되었다.



ABL은 기업·인수합병·조세·금융·지적재산권·국제거래·공정거래 등 각종 비즈니스 관련법 분야의 논문 및 최신판례 소개를 주된 목표로 하며, 특히 편집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타 저널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비즈니스 및 금융 분야 규제 관련 논의 개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제완)은 지난 9월 21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리베르타스 홀에서 "Business and Finance Regulation from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 제2회 ABL Symposium을 현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평소 ABL 저널의 발행을 지원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완 법학연구원장, 정영환 ABL 편집장의 개최사 및 환영사로 시작된 본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각국의 법률가와 학자들이 참석하여 총 3부로 나뉘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태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의 규제 관련 세계적 경향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서비스 분야 행동규범 강조한 기초연설

기초 연설자로 나선 William Blair 경(UK 고등법원 판사)은 "Promoting standards of conduct in financial

sector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라는 주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낮은 행동규범의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규제의 증대는 금융 분야의 비용 증가, 시장 진입 장벽 형성 등의 단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규제의 난립'보다는 '규범수준의 교양'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총 3부에 걸쳐 발표 및 토론 진행

이러 1부에서는 Raj Bhala 교수(켄자스 주립대학교)와 최철 교수(한국의국어대학교)가 각각 "Design and Challenges of Banking and Foreign Exchange Regulation in India", "Cross-border diffusion of regulatory system"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각 부분에 가하는 규제가 인도의 금융·경제 부문 혹은 한국의 KORUS FTA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발표에 이어 Asif H. Qureshi 교수(고려대학교)의 진행 하에 김흥기 교수(연세대학교)와 장지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Dora Kostakopoulou 교수(워워대학교)와 Andrew McGee 교수(맨체스터대학교)가 "The Promise of European Union Citizenship"과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를 발표한데 이어 Mariana H. Crespo 교수(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의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들은 각각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에 유연한 이동성을 방해하는 규제의 지양,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영국 보험법의 개혁, 그리고 국가-외국인 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적절한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였다. 발제 후에는 각각 이용중 교수(동국대학교),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김범수 변호사(KL Partners)와의 토론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먼저 김기창 교수(고려대학교)의 "Recent changes in the regulatory landscape for e-commerce in South Korea"의 발제가 있었고, 이후 Friedl Weiss 교수(빈 대학교)의 "Regulatory transparency in RTAs and in the WTO"라는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기창 교수는 전자 상업에서의 정부 규제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Friedl Weiss 교수는 기존 다자간협약인 WTO 체제와 RTA 간의 호환을 위한 '규제의 투명성'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에 대해 김연미 교수(성균관대학교)와 Lin Zhang 교수(고려대학교)의 토론이 각각 이어졌다. 총 3부의 발표 및 토론을 마친 후에는 정영환 ABL 편집장과 주한영국대사 Charles Hay의 폐회사로 법학연구원과 ABL 편집위원회는 내년을 기약하며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의 규제와 관련법 연구의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던 제2회 ABL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였다. **KL**

김소정 법학전문대학원 17-7기



선배와 후배 멘토링으로 고려대 명성 잇는다

고려대학교 법조인 교우회 '멘토-멘티제 만남의 밤' 개최

지난 8월 28일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멘토-멘티제 만남의 밤'행사가 열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멘토-멘티제는 다양한 법조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대 출신 선배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과 조언을 나누주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멘토-멘티제는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 방식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바뀌면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전통과 명성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는 고민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고려대학교만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지켜가고자 고려대학교 법조인 교우회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 그룹별로 멘토링 진행

다같이 모여 식사와 함께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함께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원, 검찰, 변호사 세 그룹별로 지역을 나누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기획하였고, 이번 행사는 그 첫 자리였다.

하명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감사로 표하며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환균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장은 "다양한 학부 출신 학생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고려대 법조인의 자존심을 드높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지역별로 모인 멘토들로부터 로열티와 희생정신, 책임정신을 배워가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선배들은 후배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준비

가 되어있으면서 후배들 역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열정과 성의가 넘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교수님들, 학생들, 교수님들 모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멘티의 적극적 자세와 멘토의 내리사랑을 더욱 빛내자"는 정승환 교무부원장의 소감과 함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생생한 간접 현장경험, 지속 개최할 터

각 지역별로 멘토 1~2명에 멘티 5명이 모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관심 있는 법조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테이블별로 멘토들이 일어나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멘토-멘티제에 임하는 소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거국적인 건배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선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영달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법조인의 삶,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임한다는 자부심, 나아가 모교에 대한 애정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앞으로 치열하게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의 밤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멘토-멘티제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고려대 법과대학의 명성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 이 프로그램이 발전적인 유효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재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로펌인턴’

평소 로펌인턴이 궁금했다면? 두 명의 재학생이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로펌 현장에서 눈으로 몸으로 갖고 닦은 노하우를 보내왔다. 친철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부분을 짚어보자.

기본에 충실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형진(김앤장 법률사무소)

01. 인턴의 주된 업무와 과제

주된업무로는 공통업무와, 선택업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공통업무는 어느 로펌을 막론하고 회사법과 관련한 기업 자문 업무가 핵심을 차지하는데,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출제되었습니다. 강평 시간에는 바로 로펌에서 직접 다뤘던 업무 위주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소장, 답변서, 반소장 등을 작성하는 송무 업무도 수행하며, 이때 형식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아직 해당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제에 주어진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서면의 논리적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택업무는 노동, 금융, 조세, 국제중재,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 중 관심있었던 분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턴끼리 공통업무를 함과 동시에 과제만 따로 부여되기도 하고, 로펌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관심분야에 따라 각 팀에 인턴들을 배정하여 관련 과제들을 각 팀의 변호사가 직접 출제하기도 합니다.

02. 좋은 성과와 평가를 원한다면!

인턴 과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다루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명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 가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과제 전체에 잘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확한 해답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배운 기본법

을 중심으로 가진 지식들을 최대한 살려 과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로앤비, 법제저, 각 정부부처 등 법률정보사이트를 다루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제에 대해 더 조언을 드리자면, 제출 기한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과 문서의 형식에 대한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는 로펌의 생산물(Product)이므로 아무리 과제 내용이 좋더라도 늦게 제출하거나, 문서에 오타자가 있거나, 지시한 형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나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제출 기한보다 30분 먼저 해당 내용을 출력하여 오타자를 점검하고 혹시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요 기능만은 미리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03. 이럴 때 어려웠어요

인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나 여러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지고, 변호사님들과의 식사자리, 각종 교육 등의 스케줄이 바쁘게 이어지곤 합니다. 저는 각자 다른 과제들의 제출기한이 겹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조절하여 제출 기한에 맞게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부디 2주 간 개인 일정 조정을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04. 이런 점은 꼭 갖춰라!

공부할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좋은 강의를 듣고 학교 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기본법 필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학교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기 및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펌 인턴을 나가면 같은 학교 동기들이 실제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힘든 점을 상담하고, 고민을 나누고, 어려운 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바쁜 학사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일은 아니지만, 평소 동기들과 서로 도우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5. 자기소개서 작성 tip

되도록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선배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관심 분야가 비슷하거나, 같은 전공 출신, 외국어에 강점이 있거나, 지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는 등 본인의 캐릭터와 관련이 있는 선배에게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나 도움을 청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도 얻고 자기소개서에 부각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매력도 발견하고, 여러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 여러 번 고쳐 쓰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며 부족한 점을 찾아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여러 사람에게 많이 읽혀서 객관적 시각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여러 번 고치고 직접 소리 내어 읽어보기도 하며 내용이 알차고 간명한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KU**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봉성(법무법인 세종)

01. 인턴의 주된 업무와 과제

인턴의 주요 일과는 강의를 듣거나 과제 및 토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과제는 그 범위가 1학년 때 배우는 민법에 한정되지 않고 상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을 포괄하는 쟁점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법률정보조사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과제는 조별로 하나, 개인별로 하나가 주어집니다. 조별 과제는 실제 로펌에서 수임하였던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나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단지 조별로 과제를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 조와 각 원고와 피고를 맡아 토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발화 능력과 더불어 토론할 때의 자세 등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쟁을 벌여 상대를 이기려고 하거나 흥분하여 상대의 말을 끊는 등의 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 과제는 가치분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경우 형식은 정해져 있으므로 사안의 쟁점이나 문제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록 수업은 물론이고 법문서 작성 수업도 듣지 않은 1학년의 경우 형식 자체가 낯설 수 있으므로 미리 책을 보고 공부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2. 이럴 때 어려웠어요

사실 과제를 할 때 태반이 아직 배우지 않은 범위가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인턴하는 동료들도 같은 처지이고, 법 지식 못지않게 리서치 능력이나 사안 포섭 능력, 창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크게 압박을 느끼지 않아

도 됩니다. 오히려 변호사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동료들과 상호 토론하면서 배워나간다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 편이 결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르는 부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03. 과제 이외에 좋은 인상을 주려면? 회식자리를 활용하라

세종은 알려진 대로 인턴 과정 중 회식이 다소 잦습니다. 술자리 외에 점심도 담당 변호사 분들과 함께 먹는 편입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세종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인지, 대인관계는 좋은지, 평소 생활태도는 어떤지 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당연하게도 얼마나 잘 마시는지가 아니라 본인의 주량에 알맞게 마실 줄 아는지를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적절히 어울릴 줄 알고 또 자제할 줄 알아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04.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기소개서는 물론 내용이 풍성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무리하게 동아리 활동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각 로펌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라는 직업과 지원하는 로펌에 대한 충성심을 적당히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용 이외에도, 문장을 간결하게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술구조나 맞춤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무엇보다 글을

쓰는 직업이므로, 글쓰기 능력은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05. 덧붙임

1학년 겨울 인턴의 경우 채용을 전제하는 곳이 드물고 이수학점에도 포함이 안 되거나 기본법 학습에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원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로펌 생활이나 분위기를 비교적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변호사 직업 자체를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적성이나 성향에 맞는지를 직접 판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배울 회사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더불어 2학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실무수습을 시작할 텐데, 로펌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또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앞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 기간이 5일로 짧은 편이고 일정도 여유롭게 짜여 있으므로, 부담 갖지 말고 지원해보시길 추천합니다. **KU**

김소정 법학전문대학원 16-7기





승승 장구 취업전략 살피고 로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JOB FAIR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 로펌들이 참가한 'JOB FAIR'를 개최하였다. 각 로펌의 특성화 분야와 문화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설명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로펌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올해에는 법무법인 세종(이하 '법무법인' 생략), 바른, 태평양, 울촌, 지평, 충청, 광장, 로고스, 화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영 회계법인이 JOB FAIR에 참여, 각각 원하는 인재상을 피력하였다.

로펌, 무엇을 원하는가

로펌 변호사의 삶을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라면 JOB FAIR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각 회사의 업무환경과 문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취업한 선배들의 조언을 빌리자면, 전문성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사회성이나 조직 적응력 또한 우수 로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에 맞추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꼼꼼한 면접 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무수습 참가자 중심의 선발계획

JOB FAIR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을 설정하고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들은 지난 하계방학에 이어 동계방학에도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입 변호사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수습에서 수행한 과제의 완성도, 선배 변호사들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동기들과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최종채용에 영향을 미친다.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라

특히 취업을 원하는 기관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고 정보들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입사한 선배 법조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해당 기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로펌의 채용담당자는 귀띔한다. 이번 JOB FAIR를 계기로 올해에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가 빛나기를 바란다. **KU**

이상호 법학전문대학원 6기

Editor's Talk



김재희(6기)

매호 발행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는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이번 호는 멘토멘티행사 취재를 통해 학교를 향한 선배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여과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김현경(5기)

편집진들과 모여 함께 회의하고, 각자 기사를 맡아 취재해서 고대법학을 만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드디어 11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취재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교수님과 같이 애쓴 편집진 덕분에 이번호도 즐거웠습니다.



김소정(16-7기)

맨 처음 기사주제를 받고 막막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발행이라니 뿌듯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고대법학>을 끝까지 보셨다는 거겠죠? ㅎㅎ 감사합니다.



나지선(6기)

기사작성을 위하여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볼 때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 기사를 위해 김규환 교수님을 뵈고 고대 구성원으로서 졸업 후에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승원(7기)

어느덧 고대법학과 함께한 지 세 번째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도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고대법학을 통해 여름 끝자락부터 늦은 가을 사이 고대 로스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다가오는 겨울호도 기대해주세요.



김소정(17-7기)

하나의 글을 써낸다는 것은 송고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민선(6기)

이번 11호에서는 법학연구원의 사이버법연구센터를 취재하면서 평소 잘 알지 못하던 정보안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현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대법학을 매개로 매번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훌륭한 분들을 만나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김현중(7기)

매호 작업이 보람 있고 흥미롭지만 특히 이번 호에서는 평소 관심이 많던 헌법분야의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고대법학 발행을 위해 회의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1학년 생활도 끝나가고 있구나 문득 느끼게 되네요.



이상호(6기)

편집진으로서 고대법학의 발간을 맡은 후로, 가을호도 벌써 두번째입니다. 가을은 결실을 맺는 계절인 만큼 저도 친구들도 원하던 바를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